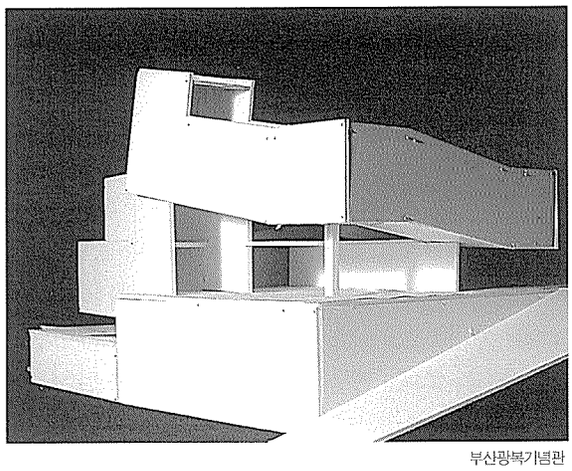
부산광복기념관 비평 critique

Pusan Independence Hall

단정하고 정직한 새로운 기념관건축

A New Work of Monument Architecture With Decency and Sincerity

이정호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Jung-Ho



부산광복기념관

건축가 정연근은 원래 대학교수였다. 10여 년 전에 그가 재직하던 울산대학의 졸업 작품전 크리틱에 초청되어 만났을 때 외국과 달리 건축설계를 전공한 교수의 공식적인 작품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살고있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면서 설계 작업을 해야겠다는 뜻을 비추던 그때 이후 그는 이제 건축작가로서 이미 5년여 동안 세파에 견디어온 한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사이 사무실을 개업할 때 그의 약력과 사진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통해서, 또 이상건축이 마련한 "토요 이토"의 특별강연장에서 잠깐 본 적은 있으나 그의 작품을 직접 대하면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 안정된 직장이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건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은 척박하고 험난한 현실과의 투쟁이 요구되는 작가의 길을 과감히 선택한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장을 방문했던 날,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감정 그대로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를 지키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후 손학식씨와 찰스 무어의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의 다른 작업은 아직 볼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 기념관과 다른 작업들을 비교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그의 다른 작업에 대한 호기

Architect Jeong Yeon-keun started out as a professor of architecture. Some 10 years ago, I was invited as a critic of graduation exhibition at Ulsan University, where Jeong was then teaching at, and got to speak with him about the regrettable condition of Korea where a professor could not have a simultaneous profession as a practising architect. He had a strong will to do actual design works, and he did - 5 years ago he gave up his privileged position at the University and dived into the world of hardship as an architect. It surely must have been a difficult choice, and when I finally met him again at his recently completed work - Pusan Independence Hall - I could still sense his sincerity and eagerness toward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one which deeply impressed me a decade before. Since I am not familiar with his works as an architect, it is unfortunate that I cannot view the Independence Hall in the context of his other works. Nevertheless, this new work of the architect, who, after studying in the US, has worked for Son Hak-shik and Charles Moore, seemed to inherit all the personality of its creator - decent and sincere, moderate and ord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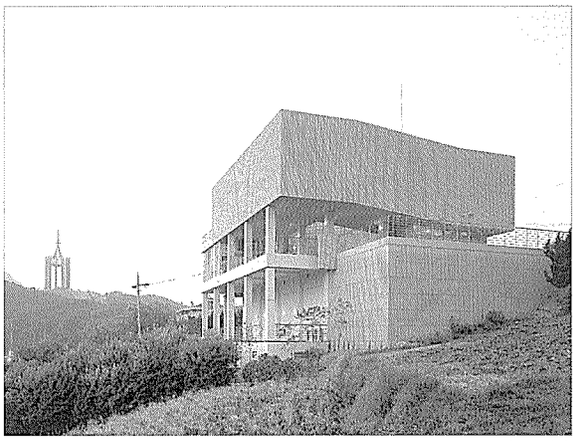
A design competition for a monument has many appeals for an architect - especially in this low climate of construction market and when the site has this much importance. Unlike turnkey projects that require exceeding amounts of effort on presentation or achievement record-based PQ, this competition, though with a relatively small site, provided architects with a good opportunity to design something that really mattered.

The site of the Independence Hall was in the most symbolic spot of Pusan - the top of Mt. Yongdu Park. It is to become the living educational center for the regional independence activities, and in architectural terms, it is one of

심이 새롭게 생긴다. 왜냐 하면 그의 다채로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념관의 첫인상은 오히려 절제되고 정리되어 있어 그의 성품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듯하다. 기념관이란 이름의 현상설계는 뜻있는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이다. 요즘 같이 건축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작품성이 있고 그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마저 아주 중요한 곳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근래에 들어와 심사와 프리젠테이션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는 턴키방식이나 오랜 경력과 실적이 요구되는 PQ가 아니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 광복기념관은 도심공원으로서 모든 면에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성을 띠고 있는 용두산 공원 정상부에 위치하며, 지역 독립운동사의 산 교육장인 동시에 기념관 건축으로서의 상징성, 예술성을 포함하면서 공원과 조화되고 연구 및 전시, 관리의 기능이 두루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 현상설계의 당선 안이다. 최근에 시행되는 현상설계에서 보이는 건축경향은 나의 주관적 관점으로 볼 때 다양한 형태어휘들과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눈을 현혹시키듯 요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기념관 건물은 매우 소박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기념관에서 보여지는 과도한 형태의 힘이 실린 집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가 적절히 담긴 건축이다. 물론 대부분의 현상설계를 통한 건축물이 그러하듯이 이 건물도 계획당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시동의 재료가 노출콘크리트에서 석기질 타일로 바뀌고 공사비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 원래의도가 약화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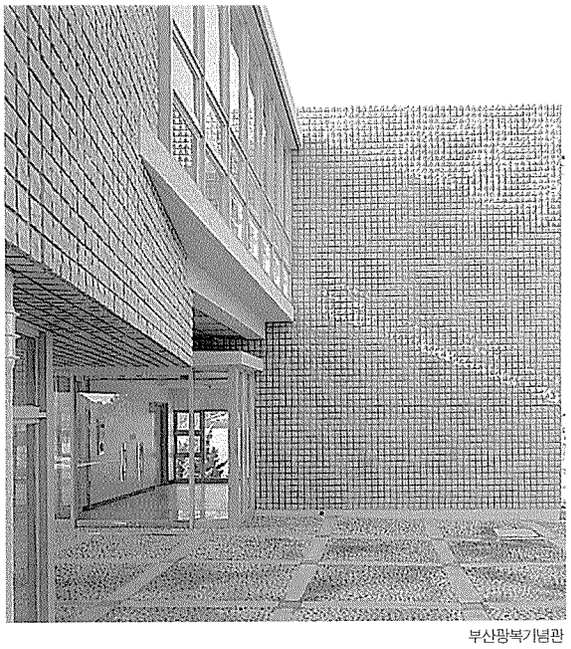


부산광복기념관

이 건축의 설계의도는 근대건축에서부터 추구해온 공간과 기능과 형태의 유기적 결합에서 보여지는 완전성의 추구이며, 주변환경과 대지의 상황을 사람들의 시각적 감성에 맞추어, 땅과 하늘 그리고 건물과의 관계를 solid and void, open and close, empty and stuff의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 결절부나 실과 실사이의 연결부에서 외부와의 관계 및 빛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

symbolic and artistic values that had to form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park. It also required a clear solution in distribution of functional programs such as research, exhibition and management. The winning scheme of the competition on this demanding project was the one submitted by Jeong, and it, in my personal opinion, is one with decency and sincerity, unlike most eye-catching, visually complex, and multiple-cladded works which other competitions these days tend to produce. Most monuments that come to our mind are exaggerated with overpowered forms, but this work is free of such - it instead chose to moderately display the various layers of the architect's intentions. Like most competition-winning works, the final realized version has gone a long way from its initial scheme, where the exterior finishing of exhibition hall has changed from exposed concrete to stone tiles and budgetary constraints produced some more modifications, the Independence Hall we now have still seems to be an accomplished work.

The main aim of this project was to realize a state of completeness, in the way it was envisioned since the modern ages - the organic integration of space, function and form. With this objective, the architect approached the project with methods of contrasting between the solid and the void, between the open and the closed, between the emptied and the stuffed, in the building's relation with the land and the sky. In the junctions or connecting points between rooms, connection or disconnection of masses are used in reflection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and the play of sunlight.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spaces is dominated by a sense of variety provided by volumes with similar sizes expanded or reduced vertically. Made in correspondence with the architect's own



부산광복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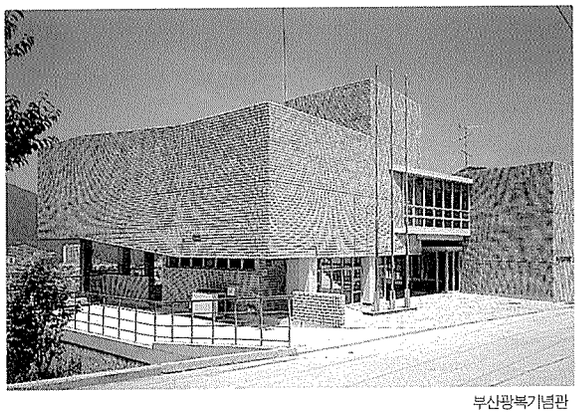
하면서 매스를 연속, 분절시키고 있으며, 유사한 크기의 볼륨들이 수직적으로 확장 혹은 축소되면서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등 매우 교과서적인 건축적 해결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가 자신의 "튜브는 끊어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며, 낮아지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도 한다." 는 현상 안에서의 설명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혀 교과서 적이지 않은 특성 또한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환경과 요소들에 대한 관계설정이 보이지 않는 혹은 무시된 점이다. 즉 대지의 해석에서 거의 언제나 볼 수 있는 축에 대한 이야기나 - 주변에는 시각적 랜드마크이면서 거대한 기념비적 성격을 가진 김중업 선생의 충혼탑이 있고, 이 부지 부근에서 레벨 차와 방향이 다양하게 변하는 도로나 산책로들이 갈라지고 있다. - 기존의 자연요소나 인공적 요소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이것은 공중에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으로서 기념성을 강조하려한 형태해석과 그 조각물에 에워싸여 만들어지는 중정, 그리고 그 속에 전시될 오브제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완결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과 전시물 사이에서 느껴지는 의도된 긴장이며 이러한 감정은 중정 데크의 하부, 즉 지하공간의 로비에 도달할 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 천장도 매쉬로 처리되고 층고가 높으며 전망이 탁 트인 - 큰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건물에 진입 시나 전시장 내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작가의 표현처럼 "굴곡과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강한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의 교과서적인 공간의 시퀀스를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적 해결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작위적이거나 평범하게 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념관에 사용된 이러한 공간전개방법의 결과에 대해서 혹자는 너무 단순하여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나, 모든 건축은 보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기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비평 대신에 리차드 마이어가 그의 작품에 대한 렉쳐를 할 때 "당신의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고

description from the initial competition - "the tubes are at times disjunctive, interconnected, lowered or open up to the sky" - it is these "by the book" skills that add up to the accomplishment of this work. We find, however, some instances that betray our "ordinary" expectations, such as its indifference to the surrounding context and its elements. What we see in site analysis of most projects is how it made use of the land's given axis, which in this project should have proved fruitful since the Monument for the Loyal Dead, designed by Kim Jung-ub, one of the most respected architects of Korea, sits on a neighboring site, along with roads and pedestrian paths with various heights and orientation. Here we see none of these. The Independence Hall is rather a work of sculpture, floating above the surrounding conditions. This formal intention is further enhanced by the court which is surrounded by this volume, and the various objects it will store. In other words, it is self-complete. The tension we feel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objects was also calculated, and is suddenly replaced with "a sense of freedom from flection and oppression" in the lower portion of the court deck - i.e. the mesh-covered underground lobby with enormous height and view. This sort of spatial sequence is also something that has been repeatedly tested since the ag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is now almost worn out and lost its luring effect on the viewers. It may be considered too artificial, or even too simple. But before we lay such judgement on this particular means, I would like to quote an answer by Richard Meier, made to the question asking whether he believed his favorite play of lights in the atrium spaces actually gave the intended pleasure to its visitors: "Let us



부산광복기념관

있는 아트리움 공간의 빛의 효과에 대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소개한다.

"당신이 직접 가보고 난 후에 이야기합시다."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이해와 시공자의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광복기념관의 경우에 노출콘크리트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에는 발주자인 시 당국과 시공사의 마감정밀도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란 사실은 능히 이해될 수 있는 한국적 현실이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노출콘크리트는 기피해야할 재료가 아니란 것을 관에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이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굳이 웃존 같은 건축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건축풍토도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건물은 미완성이다. 기념관의 완성은 건축가가 의도한대로 중정과 전시장안에 전시물이 제대로 놓여져야 비로소 완성되는데 아직 이곳의 내부는 비어 있다. 또 중정 데크층의 - 유리로 처리되어 외부로의 개방감과 동시에 부유하는 전시동의 형태이미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 광복회 사무실의 유리벽이 수직 브라인드로 다 막혀 작가의 의도가 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비록 작은 것이나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는 중요한 요소인 중정의 계단과 내부계단의 난간과 조명 같은 일부 소품들이 건축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알바로 시자의 "대부분의 내 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일부는 진행되었고 일부는 크게 변경을 가하거나 파괴되어 버렸으며 어떤 것은 남는다. 공간에 사람의 족적을 남긴 누군가에 의해 여기 저기 조각들이 있으며 이것은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녹아든다."라는 말처럼 건축은 계속 변화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언젠가 건축가의 뜻대로 전시물과 조각품이 건축공간 속에 다 채워진 후에 다시 이 기념관을 찾아 보고싶다.

get to that question after you actually visit one of my buildings."

Behind an accomplished work of architecture, we cannot overlook the generosity and understanding of the client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case, the reason behind the replacement of exposed concrete by tiles was in the lack of trust and confidence from the part of the city - the client - and the engineers. This is the current condition of this country and is very unfortunate. Even if we do not bring up the ideal case of Jorn Utzon's Sydney Opera House, competition winning projects should receive their due respect.This building is still in construction. It is only complete when it reaches the state that the architect has envisioned - when the art objects are all placed on their right spots in the court and the exhibition spaces, which now still remains empty. The window of the management office from the court deck level is, contrary to the wish of the architect which is to make the above volume "float", blocked with horizontal shades. Minor examples of the lighting fixtures and rails of the court and indoor stairways have also been finished in an unsatisfactory state.

Alvaro Siza has once commented on what is complete for architecture:

"Most of my works are still unfinished. Some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on, while others have been drastically altered or destroyed. Spaces are left with marks left by its users, which, along with time and the flow of the era, transform the architecture as a whole, and permeate into the building." It is always in a state of change towards completion. I surely hope to visit the Independence Hall once again, when it finally reaches this final state.